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 기독교윤리



12월 2일(목) 오후 7~9시 / 온라인 Zoom

- 본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만 진행되며,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의 | 윤신일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 기독교윤리



12월 2일(목) 오후 7~9시 / 온라인 Zoom

1. 본 포럼의 발제문, 자료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본 포럼 녹화 및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3. PPT는 기윤실 홈페이지-자료실-자료집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차 포럼은 2022년 1월 20일(목) 오후7시에  
비대면(zoom)으로 진행됩니다.

# 보수 원로목사들과의 만남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발표-

성신형(송실대 교수, 기독교윤리학)

# 1. 만남의 동기

- 한국적 시민성에 대한 궁금증
- 한국사회의 독특성과 보편성
- 팬데믹 상황과 한국 사회
- 기독교와 시민사회
- 기독교시민성 개념 도출

## 2. 만남의 대주제

- ▶ 현재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 어떤 변증법적 변화가 있으셨을까?

### 3. 만남의 소주제

- ▶ **(과거)**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참여가 없던 시절 먼저 참여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셨는지?
- ▶ **(현재)** 목사님들의 활동을 우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미래)** 후배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 4. 만남의 결과

- ▶ **(과거)** 기독교가정/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서 일을 하심
- ▶ **(현재)** 민주화운동을 이어받은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자리에 서 계심 → 북한문제(반공주의) 종북세력이 정권 장악
- ▶ **(미래)** 종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일/ 북한 동포의 해방

## 5. 평가

-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 (신념)
- 반공주의 신봉 (진보와 보수의 기준)
-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
- 오늘을 위한 시민성에 맞지 않음
- 다양성이 무시된 시민성 (반공만 고수)



# 결론. 기독교적 시민성을 위한 과제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기독교윤리



12월 2일(목) 오후 7-9시 / 온라인 Zoom

시민성이라는 개념도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야 되고,  
반공주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고수하시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옳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형성과 기독교 : 역사적 개괄

손승호(명지대 객원교수, 한국교회사)

# 1. 들어가며

## 한국 기독교의 신화

- 근대화의 주체
- 순교신앙의 기독교
- 유례없는 성장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 2. 개화기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 서북지방의 자립적 중산층 형성과 기독교

- 신흥 상공인층의 출현과 기독교 호응
- 의주 -> 평양 -> 장연 -> 서울
- 독립협회의 창설과 사회개혁 참여
- 서북지방의 사적 이익 추구, 사유재산의 자유, 경제 활동의 중요성 인정
- 기호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 But 개인주의에 대한 자각과 개인주의의 맹아 부재

# 3. 일제강점기



## 3.1운동 이전 제국주의, 이후 사회주의와의 대결

- [독립운동은 스킵합니다.]
- 1920년대 반기독교운동의 대두
- 기독교 농촌운동
-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
- But 일제의 군국주의 전환과 좌절

## 4. 해방 이후 독재정부

### 총동원체제의 문제

- 국가권력이 설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
- 장면정부 시기를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혼란기로 인식
- 질서와 통제 위주의 사고방식
- 4.19의 반기독교적 성격
- But 한일협정반대운동부터 정권에 대한 저항적 성격 회복

# 4. 해방 이후 독재정부

1960년대 중반

- 새로운 운동들의 등장
  -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기독교 지식인의 조직화, 선교사 조직 등장
- 기존 운동의 성격변화
  - NCCK 김관석 총무 선임, KSCF의 학사단운동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 4. 해방 이후 독재정부

1970~80년대

-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 인권운동의 활성화
  - 권력의 주체로서의 개인
- '5가'권의 형성
- 운동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통일운동
-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KSCF의 IT 논쟁과 분열
- 기독교문화연구회, 대학기독교신문의 등장과 복음주의 청년운동의 IT논쟁



# 5. 민주화 이후

## 기윤실과 경실련의 등장

- 복음주의권의 사회적 책임 각성
- 에큐메니칼 기독교청년운동 중 YMCA계열과 온건한 복음주의 기독교청년운동의 합류
- 기독교 시민운동 네이밍
- 시민운동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시민운동의 성격 규정
- 지속적인 에큐메니칼 진영의 활동 둔화
  
- [지금 : 할많하않]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월례포럼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기독교윤리



12월 2일(목) 오후 7-9시 / 온라인 Zoom

# 신앙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인가?

: 공적 이성으로서 종교적 이성에 관한 탐구

김승환(장신대 초빙교수, 기독교와문화)

# 후기 세속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

종교의 공적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공성의 실천과 공공선(common good)의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적 영역은 세속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종교 기관과 그곳에 소속된 시민들에게는 닫혀 있는 곳이 아니다.

---

한국교회의 건강한 공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반지성적(anti-intellect) 행태를 볼 때, 한국교회의 건강한 공적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미국의 반지성주의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리처드 호프스태터 지음  
유강은 옮김

## 교회의 반지성주의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지성주의의 기원을 몇 가지로 서술한다. 바로 '복음주의', '원시주의', '실용주의', '반공주의'이다. 그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반지성주의의 토대에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타락은 지성이 타락한 결과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역사는 오늘의 세계 문명을 성찰하게 해주는 훌륭한 교과서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교육서가

# 지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호프스태터는 지성(intellect)과 지적 능력(intelligence)을 구분한다. 지성은 음미하고 숙고하고 의문시하고 상상하는 창조적인 사색인 반면, 지적 능력은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지적 능력을 지닌 지식인들은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지성인들은 사회를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합리성 너머의 관점으로 해석과 재해석을 반복한다.

# 미국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먼저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다. 비판적 성찰을 상실한 복음주의 신앙은 강력한 대중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지식과 지식인을 혐오하는 포퓰리즘을 통하여 집단 광기로 나타났다.

이 흐름에는 ‘부흥주의’(revivalism)가 동력을 제공했다. 미국의 초기 교회는 청교도의 극단적 지성주의를 추구했던 성직자들의 지적인 설교가 주도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점점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 빠르게(손쉽게) 시민들을 개종시키는 부흥주의 문화로 발전한다



#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는 종교 문화적 토양으로서 '원시주의의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고,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의 흐름에서 강력한 동력을 제공받으며,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적 극우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광장의 광기로 폭발되었다.

한국 개신교는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근본주의적 성경론과 종말론이 일찍부터 유했다. 성경무오설과 축자영감설, 문자적 성서 해석으로 상징되는 근본주의적 성경론, 그리고 이러한 성경론과 비관적 역사관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전천년설적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진영은 헌정  
정치와 종교!**

목요일 밤 11시

# 한국교회의 반공주의적 극우주의 흐름

---

1932년 9월 예수교연합공의회 9차 총회에서 발표한 '사회신조'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개신교는 공산주의를 무신론을 신봉하는 사탄의 체제로, 공산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함.

1965년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애국심과 신앙심이 결합한 형태이며, 1980년대 들어서 군부독재정권을 옹호

1990년대 민주화 이후의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서 '뉴라이트 운동' 등장.

2010년 이후 전광훈 현상으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 세력 형성



# 존 롤즈의 공적 이성

---

존 롤즈가 말하는 공적 이성이란 사회의 정치적인 근본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성이다.

이성이 '공적'이란 뜻은

첫째, 그것이 공중(public)들의 이성이란 뜻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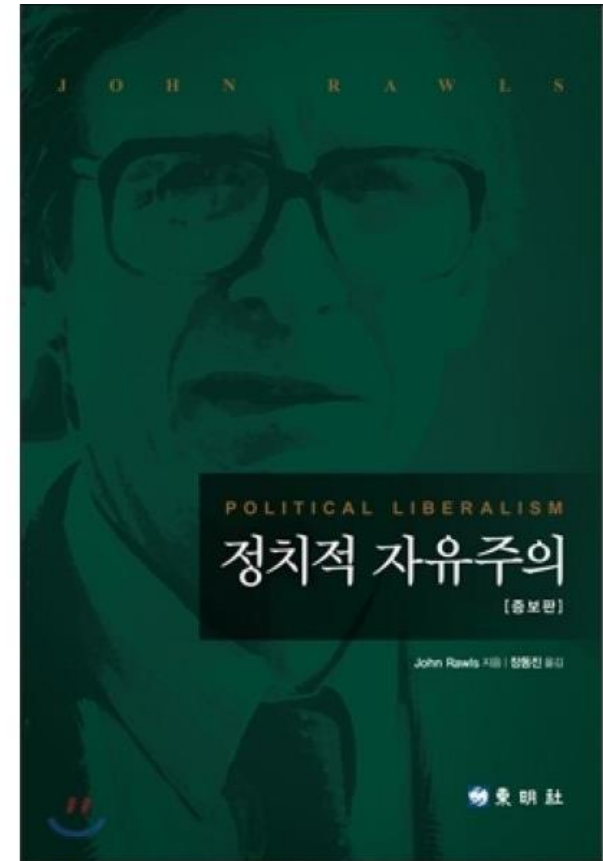
둘째, 공적 이성이 다루는 주제가 근본적인 정의 문제, 정치적 문제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셋째, 그 문제가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통해 검토된다는 것이다

#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이성의 폭넓은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민주 시민들은 각자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틀 내에서 숙고할 때 공적 이성에 참여하게 된다.

롤즈가 공적 추론의 과정에서 다른 교설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후기로 갈수록 넓은 견해 (wide view)로 선회한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정치적 이유를 제시할 때 공적 이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롤즈의 중첩적 합의

공적 이성으로 인정되는 절차의 핵심은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이다. 중첩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타인의 정치적 관점을 인정하고 그 관점이 비정치적인 가치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윤리와 정치적 의미를 분별하는 작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기보다 공적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일정부분 제한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은 비종교의 타자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행위이다.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보여준 공적 이성의 특징은 개방성과 합리성이다. 인종, 문화, 언어, 지역 등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며 각자의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한 교설들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공유된 가치와 동기, 정서들을 취합한다.

# 의사소통행위이론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한림대) 옮김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1

Handlungsrationalf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이성의 합리성을 제안한다. 합리성은 인간의 내면 의식안에서 형성되는 무엇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성화의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는 '논증적 대화'의 합의 형성적 힘에 대한 근본적 경험의 성질이다.

이성이 공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직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타자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토의를 위한 공간, 즉 공론장이다.

# 종교 언어의 번역

하버마스는 종교가 공적 이성이 작동하는 배경에서 시민들 간의 신뢰와 믿음 체계를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법과 통치 이념의 근거로서 종교는 타자의 이성적 활동을 인정하고 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는 이성이 공론장 안으로 들어갈 때 번역(translation)되어야 할 것은 제안하면서 그것이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기여가 있음을 인정한다.



# 미로 슬라브볼프의 공적 이성

미로슬라브 볼프는 『알라』에서 기독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이성(reason)의 유무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성의 신'(God-as-reason)이지만 이슬람의 하나님은 '순수의지의 신'(God-as-pure-will)이다.

전자가 논증과 심의 그리고 설득을 장려한다면, 후자는 순종을 요구하고 폭력을 장려한다. 기독교의 '이성의 신'이 신앙에 대한 이성적인 간증과 정치적 심의 절차를 뒷받침한다면, 이슬람의 '순수의지의 신'은 무력에 의한 신앙 전파와 신의 의지를 해석하는 자들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뒷받침한다

알라? الله? GOD? 하나님?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혀 다른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에  
이 책은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볼프의 책은 명쾌하면서도 설득력 있다.”

-필립 젠킨스, 베일러 대학교 역사학 교수

김영미, 김영봉, 박현도, 정매해 추천



# 로고스의 이성

---

λόγος

볼프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하나님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 기독교에서 이성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곧 이성이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이다.

# 사랑의 해석학 VS 의심의 해석학

볼프는 공적 이성이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성을 통해 마주한 타자들과의 화해와 평화를 더욱 중요시했다. 그에게 포용과 화해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의 해석학'(hermeneutics of love)**이다.

마르크스나 니체 그리고 리코르 등이 추구한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은 텍스트를 분석하며 깊은 의미를 찾고, 텍스트에 감춰있는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상황들을 파헤치지만 '사랑의 해석학'은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사랑의 진리를 보존하고자 자애로운(charitable)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랑은 지적인 대화의 파트너(비판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다



# 이중적 보기(double vision)

---

첫째, 먼저 상대방과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기억해 둔다.

둘째, 상상 속에서 당신 밖으로 나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셋째, 상대방의 눈으로 당신 자신과 상대방을 관찰한다.

넷째,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발견한 것을 비교한다.

다섯째, 그 과정을 반복하다.

위의 다섯 가지로 제시된 '이중적 보기'는 이성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옳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가 옳은지를 살펴보기 전에 각 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목표는 공통적 이해, 왜곡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 종교적 이성의 공공성

종교적 이성의 공적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공적 대화'(public conversation)**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에 근거한 비판적 성찰과 의사소통 및 합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세속 이성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착하면서 공적 기여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

신학이 공적 기여를 위해서 **다양한 학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비평적 연구와 열린 토론, 사회윤리와 합의를 통한 방법론**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학은 교회 밖의 공통의 관심사인 다양한 이슈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더 넓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과 대화하고 실제적으로 공적 영역안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와 법윤리

김성수(명지전문대 교목, 기독교윤리학)

## 들어가는 말

- 시민성: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덕, 시민이 **가져야 할** 덕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성
- 시민사회를 증진하는 시민성-> 시민적 용기
-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 파악과 법윤리적 함의 설명이 목표



# 시민적 용기의 개념

- 용기(아리스토텔레스):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
  - > 사적 용기(개인적 차원의 덕)
- 시민적 용기(근대): 부정적 결과를 감수한 채 **공적 이익과 관련된** 옳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
  - > **공적 용기**(공적 차원의 덕)
- 19세기 독일사회(권위에 대한 복종 의식)-> 나치 시대(저항 의식 성장)-> 1945년 이후(시민적 용기 부각)



##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이해

- 교회 투쟁의 위기와 군복무의 압박 속 본회퍼
- 1939년 미국 방문 후 히틀러 암살 계획 가담-> 1940년 초반부터 "윤리학" 집필
- 1942년 말 "10년 후" 집필-> 시민적 용기의 필요성 제기



---

##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이해

- 자유로운 책임의 실현
- 책임(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행위)은 대리 행위(자기 포기)로 구체화
- 대리 행위는 현실적합성(이성적 구조를 존중하는 태도와 특정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숙고하는 태도) 요구



##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이해

- 현실적합적 행위는 죄책 감수 포함
- 책임적 행위는 자유 속에서 실행
-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 1)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태도  
2)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에 필요하고, 죄책을 감수해야 하는 대리 행위를 자유로운 판단 속에서 실천하려는 태도





## 시민적 용기와 법윤리적 노력

- 법에 대한 비판: 아리안 조항

강제 불임법과 안락사 정책

- 법 개선을 위한 행동: 문제의 근원인 히틀러 암살 계획 가담



---

## 나가는 말

- 고난당하는 자를 양산하는 법은 불의한 법
- 비폭력(공론장 참여와 시민 불복종)을 통한 법 개선 노력 필요

